



대 외 홍 보 자 료 (총 4 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변서영 대리 061-900-2215/sybyeon@arko.or.kr

홍보팀 이재일 과장 02-760-4538/news@arko.or.kr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추진단

정다운 사무국장/큐레이터 02-6490-5579/gosooboogee@gmail.com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오는 5월 28일부터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 ‘용적률 게임’을 개막한다. 2016년 건축전은 5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베니스 자르디니 및 아르세날레에서 열릴 예정이며, 알레한드로 아라베나(Alejandro Aravena, 칠레건축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2016년 수상자)가 전시 총감독을 맡고 있다. 아라베나 감독이 제시한 2016년 주제는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로, 참여하는 국가관은 이 주제에 따라 각국의 건축 전선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베니스비엔날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엔날레로, 미술전, 건축전, 영화제가 ‘3대 주요행사’로 꼽힌다. 미술전은 홀수년, 건축전은 짝수년, 영화제는 매년 열리고 있다. 미술전과 건축전은 총감독이 직접 기획하는 국제전(International Exhibition)과 전 세계 60~8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가관 전시(National Pavilion), 그리고 재단의 승인을 통해 진행되는 병행 전시(Collateral Events)로 구성된다.
- 1993년 백남준이 작가로 초대되었던 독일관이 국가관으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베니스비엔날레가 한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 2014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한국관(조민석)은 국가관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 미술전에는 임흥순 작가가 국제전 은사자상을 수상하였다.

- 2016년 한국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위원장 박명진)가 커미셔너를 맡고, 김성홍 예술감독(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과 신은기, 안기현, 김승범, 정이삭, 정다운 공동큐레이터가 전시추진단을 설립하여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관은 ‘용적률 게임: 한국건축의 전선(The FAR Game : The Front Line of Korean Architecture)’을 주제로 한국의 도시건축을 해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용적률 게임’은 한정된 대지에 최대의 건물 면적을 요구하는 건축주,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질을 추구하는 건축가(사), 이를 통제하고 조율하는 법과 제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사회적 현상으로, 지난 50년간 한국 도시건축의 숨은 동력이었으며, 현재도 99%의 건축가가 생존을 위해 부딪치고 있는 전선이다.

용적률은 하나의 지수(指數)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도시-농촌, 빈-부, 지식인-노동자를 넘어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이 맞닥뜨린 가까운 의제이기도 하다.

한국관은 그동안 건축예술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던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등 중규모의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용적률 게임을 해부하고 작은 단위의 도새재생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인구밀도, 산업구조, 도시조직의 특징을 그 배경으로 보여주며, 용적률 게임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조명한다.

베니스 비엔날레 국가관은 의제를 발굴하는 전위적인 장(場)인 동시에, 자국의 총체적 문화역량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국제적 문화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회 기간 동안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이 전시회를 보기 위해 베니스를 방문하고 있다. 예컨대 2014년 전시기간이었던 170일 동안 156,000명의 관람객이 한국관을 방문하였다. 현재 유수의 민간 기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한편 베니스 비엔날레 재단 파올로 바라타 이사장과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총감독은 2016년 2월 22일 베니스를 시작으로,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칠레 산티아고를 순회하며 대회 홍보를 할 계획이다.

□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추진단

예술감독: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공동큐레이터: 신은기(인천대 교수), 안기현(한양대 교수), 김승범(VW LAB 대표), 정이삭(A.Co.Lab 대표)

사무국장: 정다운(CoRe Architects 실장)

전시 스태프: 김형범, 최민정, 이우조, 도형록, 강희라, 김종울림, 곽윤재, 이정연, 박찬범, 이경재,

홍보 및 대외협력: 신혜원(런던), 한소영(밀라노), 정상희(한국)

초대 미술작가: 백승우, 강성은, 정연두

그래픽 디자이너: 정진열

건축가: Wise Architecture(장영철, 전숙희), A-N-D(정의엽, 이태경), Designband Yoap(김도환, 류인근), SOA(강예린, 이치훈), Apparat-C(이세웅, 최연웅), Archihood WXY(강우현, 강영진), 폴리머건축(김호민), SsD(존 홍, 박진희), OBBA(곽상준, 이소정), Thescape(천경환), 건축공방(심희준, 박수정), Chae Pereira(최성희, 로랑 페레이라), SSAI(이진오, 임태병), JOHO Architects(이정훈), BAU Architects(권형표, 김순주), BangbyMin(오세민), Eu.K Architect(권경은/지정우), Massstudies(조민석), N.E.E.D(김성우, 김상목), UTAA(김창균), 삼현도시건축(김용남), Archium(김인철), 운생동(장운규, 신창훈), THE SYSTEM LAB(김찬중), L'EAU Design(김동진), INTERKERD(윤승현), AnLstudio(안기현, 이민수, 신민재), ODDAA(오영욱), 경계없는작업실(문주호, 박운용), Designgroup OZ(신승수, 임상진, 최재원), TRU(조성익) DIA Architecture(정현아), 김효만이로재(김효만), 경영위치(김승희), OCA(임재용),

황두진건축(황두진)

해외자문: John Peponis, Richard Enos

국내자문: 임재용(새건축사협의회 회장, OCA대표), 이충기(서울시립대 교수, 예술감독 선정위원), 최문규(연세대 교수, 가야건축), 박철수(서울시립대 교수, 2015 광복70주년 주택도시전 기획연구위원)

카탈로그 기고: John Peponis(Georgia Tech), Marc Simmons(FRONT), Rowan Moore(The Observer, The Guardian), Peter Winston Ferretto(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Julian Worrall(The University of Adelaide), Meta Berghauer Pont(Spatial Morphology Group, Sweden), Neville Mars(BURB, Shanghai), 김경민(서울대 환경대학원), Winy Maas(MVRDV)

카탈로그 디자인 제작: SPACE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The Korean Pavilion
15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June 7-November 23, 2016**



**15. Mostra
Internazionale
di Architettura**
Partecipazioni nazionali



**THE FRONTLINE OF
KOREAN ARCHITECTURE**

THE FAR GAME :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